

대학 전공 교육으로서 구비문학의 역할과 가능성

홍나래*

<차례>

1. 서론
2. 대학 전공 구비문학 수업 현장의 당면 문제와 구비문학 수업 사례
 - 1) 구비문학 수업 현장의 당면 문제
 - 2) 구비문학 수업 사례와 계획
3.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이화여자대학교 구비문학 수업을 토대로 구비문학 전공 수업의 당면 문제를 점검하면서 수업 사례와 함께 계획안을 세우고 대학 전공교과로서 구비문학의 가능성과 지향의 문제를 제기해보았다. 15주로 진행되는 구비문학 수업은 설화, 무가, 민요, 판소리, 민속극 등 다양한 갈래를 다루는데, 지역적·역사적·장르적 성격이 다른 광범위한 작품과 현장을 대상으로 삼기에 교수자의 목표가 작품과 주제 선별에 영향을 미친다. 수강생의 경우 국문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고전이나 콘텐츠, 미술에 관심이 많은 타과 전공생들의 수강이 이어지고,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커지면서 구비문학 수업에서도 외국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의 변화 속에 콘텐츠·활용과 같은 측면이 교과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다 해도 구비문학 공부는 우리가 보다 꿈꾸는 사회적 가치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구비문학 연구는 민중문학에 대한 연구로 출발했던 만큼 그 기층성을 고려하면서, 공동체의 집단지성과 상징적 가치 창출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살아 있는 장르로서 장소성·실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전 영상과 자료를 미리 학습하도록 유도하고 각 갈래마다 조별표를 배치하고 토론을 독려하며 역동적으로 수업을 구성하고자 했다. 외국

*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 연구교수

인 학생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비교문학적 시각으로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구비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를 검토하고,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권의 구비문학을 해석하기 위해 문화학적 시각을 원용했다. 이는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를 깊이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현재 여러 사회문화 현상을 구비문학의 시각으로 분석하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익숙한 상황이나 가치를 낯설게 하는 데에도 나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과 이야기를 중심에 놓고 배우는 구비문학 수업은 대학의 변화 속에서도 그 학문적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

주제어 대학 전공 교육, 구비문학, 비교문학, 문학문화학, 발표와 토론, 실화연구방법론

1. 서론

본고는 이화여자대학교 <한국 구비문학의 세계> 교과 수업 사례에 기반하여 전공 교육으로서 구비문학의 가능성과 지향의 문제를 제기해보고자 한다. 이 과목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전공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3학년이상 학생들의 수강을 권장하고 있다. 구비문학은 고전문학 분과에 속해 있으며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민속극 등 구비문학의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고 갈래별 전승양식과 문학적 구조, 향유층 의식을 살피며, 구비문학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밝혀 그 현실적인 기능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¹⁾는 소개처럼 구비문학 전반에 관한 개설이면서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석을 통해 구비문학의 계승과 변용의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그 문화원형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해와 디지털시대 문화주체로서의 자기발견의 계기를 마련”하는 총체적인 교육을 지향한다.²⁾

1)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 교과목 소개 내용, <http://my.ewha.ac.kr/kukewha/>(접속일: 2023.2.11.)

교과 소개를 보면 다양한 구비문학 장르뿐만 아니라 콘텐츠, 스토리텔링과 같이 구비문학의 토대와 변화에 따른 문제 및 그림으로써 더욱 강화되어야 할 구비문학 교육의 의의와 가능성을 담고 있다. 강성숙은 2010년 대학의 구비문학 강좌를 조사하면서 구비문학이 다른 고전문학 장르에 비해 형성기반이나 생성방식 등 디지털 미디어와 친연성이 많아 교양강좌에서 콘텐츠를 연계한 명칭이 많고 전공과목들도 민속이나 문화콘텐츠 분야와의 접목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는데,³⁾ 이제는 콘텐츠를 이해·분석하고 기획역량을 키우기 위해 구비문학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⁴⁾ 콘텐츠 기획을 통해 구비문학 교육을 심화하는 등 구비문학에서도 스토리텔링·콘텐츠화를 활용하거나 이론화하고 있다.⁵⁾

이처럼 디지털시대·콘텐츠·스토리텔링은 이미 구비문학에 깊숙이 결합되어 있는데, 연구대상이나 교육 방식의 현대화가 중요한 만큼 전공으로서 구비문학·구비문학 교육은 내실 있게 진행되었는지 이번 논문을 통해 정리하면서 다시금 질문하게 되었다. 구비문학 수업에서 구비문학이란 원형·계승·변용으로 강조되어야 하는가? 현대 구비문학은 무엇을 다룰 것인가? ‘민중문학론’⁶⁾으로 출발했던 구비문학 수업이 지금은 그 기층성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가?⁷⁾ 과거에는 국가나 사회적 폭력에 희생된 인물들

2) 강의를 개설한 강진욱 교수의 2020학년도 1학기 강의계획안 참고, <https://eureka.ewha.ac.kr/eureka/my/public.do?pgId=P531005519> (접속일:2023.02.11.)

3) 강성숙, 「구비문학 관련 강좌의 현황과 교양 과목으로서의 구비문학」, 『한국고전연구』 22, 2010, 177쪽.

4) 오세정, 「구비문학의 관점에서 본 문화콘텐츠 교육 방향 -구비설화와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7, 2017 참고.

5) 신동훈, 「21세기 구비문학 교육의 한 방향-신화의 콘텐츠화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2007; 신동훈, 『스토리텔링 원론』, 아카넷, 2018 참고.

6) 이화여대 구비문학 개론 수업의 경우 7,80년대에는 〈한국민중문학론〉으로 과목명을 삼았다.

7) 강성숙은 구비 교양강좌에서 문학주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에 대해 지적하면

이 당신(堂神)이 되어 현재 구비문학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여기의 재난·희생자에 대해 구비문학 교육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나?⁸⁾ 구비보다 문학에 더 빠진 것은 아닐까?

구비문학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장르이기에, 고전에서 이어진 문제의식을 지금-여기의 상황과 함께 생각해야 한다. 구비문학 교육에 관한 선학들의 지적처럼 글이나 녹화본이 아닌 말과 구연/연행 현장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지, 자료의 흥미로움과 다채로움 속에서 깊이 있는 해석을 어떻게 이끌어내게 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⁹⁾

이에 본고는 대학 전공교과로서 구비문학 수업 상황을 토대로 위와 같은 당면 문제를 점검하면서 구비문학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고 앞으로 계획하는지 구체적인 수업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⁰⁾ 그런데 필자가 이화여대에서 구비문학 교과를 담당했던 10회 중 5회는 계절학기로 한 달 이내

서 구비문학의 현장은 노동과 생산의 터전이 많으며 기층민에게도 허락된 문학이기에 소수자의 관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강성숙(2010), 앞의 논문.

- 8) 염원희는 참사를 피하거나 귀신을 본 목적담으로 이루어진 〈삼풍백화점 괴담〉이 한과 죽음에 대한 한국인의 사고를 바탕으로 형성되었고 참사의 감정을 표출하는 이야기 행위를 통해 전승자 스스로 치유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보았다.-염원희, 「사회적 참사 소재 도시전설의 유형과 의미」, 『한국민속학』 63, 2016.; 하지만 이는 희생자를 향한 애도라기보다 일반인에 대한 문제이자 한국적 도시전설의 특성을 추출하고자 한 목적에서 연구되었다. 전근대 시대에서는 참사나 희생을 애도하는 문화정치에 설화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최근 사회적 참사 주위에는 사회학자나 작가가 먼저 이야기에 접근하고 구비문학적 관심은 사후적이고 비정치적이거나 문예적인 데에 집중하는 듯하여 고민스럽다.
- 9) 신동훈은 구비문학 수업에서 글보다 말이 중요하고 행위와 맥락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현장 경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콘텐츠 기획 과정에서 국문학적 연관성을 제대로 살리기가 쉽지 않음을 평가한 바 있다.-신동훈(2007), 앞의 논문.
- 10) 신동훈(2007)의 수업사례뿐 아니라 윤정안(2022)이 한국고전연구학회에서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한 「고전소설을 활용한 감성교육」은 본고의 좋은 참고가 되었다.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론적인 사안도 중요하지만 실제 수업 사례와 방향 제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윤정안, 「고전소설을 활용한 감성교육」, 『한국고전연구』 69, 2022.

에 진행되었고, 일반 학기 중 맡게 된 지난 2년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강의 조건은 자료의 분량과 전달 방식 및 현장 체험 과제 등을 조절하게 하였는데, 한편으로 다양한 수강생의 유입으로 수업의 방향을 시험해본 기회이기도 해서, 이를 바탕으로 수정한 계획들을 논문을 두고한 현재 필자가 출강하는 가천대학교 <구비문학과 스토리텔링>에서 수행하며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구비문학 수업의 확장성과 교수 방법에 대하여 여러 질정과 조언을 기대하면서, 다양한 조건 속에서 구비문학을 강의하게 될 교수자에게 이 사례가 하나의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2. 대학 전공 구비문학 수업 현장의 당면 문제와 구비문학 수업 사례

1) 구비문학 수업 현장의 당면 문제

(1) 구비문학 갈래·작품의 배치와 선별

구비문학 강의계획은 15주로 진행되는 수업 일정에서 구비문학 전반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출발한다. 강의 소개나 구비문학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시간을 제외한다면 14주 내에 설화 분야의 신화·전설·민담, 무속을 배경으로 한 여러 장르의 무가, 민요, 판소리, 민속극 등 적어도 5개의 주요 갈래를 적절히 나누며 순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각 갈래들은 분과 학회들이 연구 성과를 활발하게 이어가는 만큼 새롭게 첨가될 수 있는 사항들이 누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설화를 제외하면 현재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민속·연행 현장을 배경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주어진 최소한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강의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또한 갈래마다 어느 지역의 어떤 작품을 함께 논의할 것인지 선별해야 하는데,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노래와 무풍이 다르고 놀이의 형태도

개성적인 만큼 학생들에게 소개할 자료의 지역성과 작품성을 고려해야 한다. 민요 전반에서 시집살이 민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적지만 구비문 학자들이 관심 있게 연구하여 노래와 함께 기층 여성들의 삶과 정서를 부 각시킨 것처럼, 작품·지역을 선별하면 수업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고 학생들은 발표를 준비하며 이를 참고하게 된다.

작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 여러 작품들을 두루 알고 있어야 개별작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므로, 적어도 교재로 삼은 『한국구비 문학의 이해』¹¹⁾에 제시된 이야기들은 모두 접하도록 하고 더 알아야 할 자료들은 따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교재의 민담 항목에서는 예시문 외에도 환상적·회극적·사실적 민담의 사례로 표제들만 76편을 모아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시간을 두고 읽기/듣기/이야기하기/찾아보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알아가도록 계획해야 한다.

구비문학은 여러 각편들이 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각편들의 가치를 생각하고 전승되는 현장과 맥락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한정된 시간과 여러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에게 매번 각편들을 찾아보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무속신화의 경우 서사시로 구송되므로 학생들이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읽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유형을 소개 할 때 어떠한 형태로 전달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이야기관뿐만 아니라 노동과 삶의 여건이 달라져 옛 노래의 맥락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각 갈래에 따라 적절한 자료를 배경 설명으로 준비해야 한다. 최근에는 유튜브에도 자료가 많아 이를 안내할 수 있는데, 수업에서 여러 자료들을 짧게 볼 것인지 한 두 자료를 길게 살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구비문학의 자료는 고전뿐 아니라 현대에서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11) 강등학 외,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16.

대해 고려해야 한다. 다만 구비문학의 현재적 양상은 교수자가 제시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다양한 경로로 찾아내어 아이디어를 더할 수 있다. 학생들의 현재적 관심에 충분히 호응하지 못했던 부분들, 고전 작품들의 형성 과정에 대한 상상, 현재 우리 문화와 전승·향유자로서의 나와 우리 등등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논의하며 해당 갈래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도록 기획해야 한다.

(2) 수업 구성원의 다양성과 비교문화적, 문학·문화학적 시각 활용

일반 학기 중 〈한국 구비문학의 세계〉 수업은 50명 정원이지만, 계절학기에는 30명 정도 수강하였다. 구비문학은 고전문학에 속하면서도 자료 이해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국문학 전공생 외에도 고전이나 문학에 관심이 있는 타전공생들의 수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콘텐츠나 스토리텔링 관련 교과¹²⁾를 수강했던 학생들 중 문화 원형·고전에 대한 관심이 더해져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타전공생 중에는 사범대생의 비율이 높지만 계절학기의 경우 음대, 사회대, 자연대 등 다양한 전공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여 타과생 비율이 30~40%에 이르기도 하였다. 외국인 학생의 비율은 일반 학기에는 10%내외이지만 계절학기에는 20%정도였다.

외국인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 구비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를 검토하며 비교문화적으로 작품 해석을 확장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전공생들이 함께 분석할 때에는 작품/현장/전승집단의 관계 속에서 사회문화적 의미를 도식적으로 파악하기도 하는데, 문화연구에서 구비문학 연구 방법이 중요함을 일깨우는 것도 의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통해 문학·문화학의 시각으로 대상 이해를 심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갈래와 시대를 아우르는 수업이

12) 이화여대의 경우 신산업융합대학이나 인문융합전공 등에서 개설한 교과들.

기 때문에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정리하고 분석하면서 구비문학에 대한 문제의식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발표와 토론이 인상적으로 진행되었던 2017년 계절학기 수업의 경우, 수강생 31명 중 국문과 학생이 18명(외국인 학생 6명)이고 타전공생이 13명으로 타전공생 비율이 42%정도 되었다. 이 수업에서는 발표와 토론 시간에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의견을 개진했는데 강의를 마치면 사이버캠퍼스에까지 댓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어갔다. 다른 해에도 타과생이 30%이상일 때, 외국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계절학기의 경우 서로를 매일 보면서 이야기와 노래로 감정을 교류하니 ‘이야기 공동체’가 쉽게 형성되어 많은 분량을 단기간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문제의식을 주고받으며 수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처럼 외국인 학생들이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러 상황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2) 구비문학 수업 사례와 계획

주차별 구비문학 강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주	수업 갈래	수업 내용
1	강의 소개 및 기본 개념	수업 목표와 과정 안내 구비문학이란 무엇인가
2	설화의 이해	설화의 범주와 갈래 설화 연구 방법
3	신화의 세계	신화란 무엇인가 고대 건국신화
4	무속 신화와 무가	무속과 무가 무속신화의 세계
5	신화의 후대적 전개 양상	중세국가, 가문, 마을, 종교, 민중의 신화 우리 시대의 신화와 신화집단 : 발표와 토론①
6	전설의 세계	전설이란 무엇인가, 전설의 역사적 전개 지명 전설, 전설과 비극적 정서

7	우리 시대의 전설	인물 전설, 이념과 가치에 대한 논쟁 공동체의 전설/우리 시대 전설이 되는 인물 : 발표와 토론②
8	민담의 세계	민담이란 무엇인가 민담의 구조와 미학
9	우리 시대의 민담 민요와 판소리 수업 준비	21C 이야기의 세계 : 발표와 토론③ 〈서편제〉 영화 감상
10	민요의 이해	민요의 이해 민요 사설의 세계 : 자연·생명의 노래
11	노래의 계승과 변용	민요 사설의 세계 : 시집살이 노래와 어사용 우리시대 노래의 정서와 의식 : 발표와 토론④
12	판소리의 이해	판소리란 무엇인가 판소리의 미학
13	민속극의 이해	판소리의 계승과 변모 : 발표와 토론⑤ 가면극의 세계
14	민속극의 계승과 변용	인형극의 세계 우리시대의 극과 놀이 : 발표와 토론⑥
15	현대인의 삶과 구비문학	강의 질의 토론
16	기말고사	

강의 계획서처럼 필자의 구비문학 수업에서는 설화의 비중이 높다. 무가의 경우도 무속 전반을 개괄한 후 시간 관계상 작품은 신화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설화 갈래로 7½주를 배정한 것이다. 구비문학 수업에서 설화를 중심으로 삼는 것은 이야기가 흥미와 감동, 교훈과 정보로 향유층에 대대로 내면화되면서 공동체의 원형적 사고를 형성하고 감정과 지식, 신념과 지향을 공유하는 공동체성을 갖게 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도 누구나 이야기를 즐길 뿐 아니라 팬덤을 몰고 다니는 유명 인사들과 그에 따른 유사 신화 현상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특정 사건·인물·지역에 대한 풍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관심이 많고, 지역 문화 사업에 힘입어 전설은 새롭게 발굴 생성되기에 이르며, 짧은 이야기들이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지는 현상을 날마다 보기 때문에 학생들 역시 설화에 관심이 지대하다.

그러므로 구비문학 수업에서 설화를 시작과 중심으로 삼아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수업에 쉽게 참여하는 동안 대상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숙지시키고 ‘준비-강의-발표와 토론’으로 반복되는 수업 방식에도 익숙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1) 설화 연구 방법론 숙지

1주차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구비문학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구비문학이 기록문학과 어떻게 다르고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하면 좋을지 ‘심청굿, 심청가, 심청전, 심청 동화(유튜브)’ 등 짧게 제시된 자료를 모듈별로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게 한 후, 구비문학 분석은 작품뿐만 아니라 현장, 구연·연행자의 상황, 그리고 이들 간 상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수업 첫 주부터 모여서 어렵지 않게 논의할 수 있도록 친근한 대상과 문제들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참여도를 점차 높이고 앞으로 원활하게 토론/논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가고자 했다.



사진출처: 심청굿(한국학중앙연구원), 심청가(한국학중앙연구원),
심청전(한국학중앙연구원), PlayCurioTV(YouTube Kids)

2주차에는 본격적인 설화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설화 자료의 실재를 파악하고 구비문학 분석 방법을 익히도록 하였다. 설화를 조사하거나 선행 연구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각편들을 유형으로 분류할 줄 알아야 하므로 각편, 유형, 표제의 실재를 파악하도록 한다. 설화는 구연자들이 제목을 언급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연구자들이 붙인 각편 제목이나 유형

표제들도 동일하지 않아서 같은 이야기가 『한국민속문학사전』¹³⁾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¹⁴⁾에서 다른 표제를 달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각편들과 유형을 상호 연결지으며 이해하기 위해, 우선 이야기에서 표제를 유추하여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와 『한국민속문학사전』에서 각편들과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중 유형마다 각편들을 모두 검색할 수는 없으니 각자 필요한 경우 찾도록 안내하였다.

구비문학 분석 방법으로는 이야기·이야기판·이야기꾼을 연결지어 설화를 이해하는 과정을 연습하는데, 이는 여러 문화 현상을 해석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화소¹⁵⁾와 구조로 설화의 매력과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은 서사를 해석하는 데에 미적·상징적·상상적 의미를 더하여 문화사회적 이해 너머의 가치와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대상을 분석하면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해석을 시도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작품 향유의 즐거움과 문화적 실천의 의의를 되새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연습’을 강조한 것은 강의보다 조별로 학생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교수자의 간단한 피드백을 받으며 함께 이야기할 때 이후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야기·이야기판·이야기꾼을 살피기 위해 <삼공본풀이/이완(척검), 홍순언과 보은단/신립장군과 탄금대, 논개/계월향, 소 바퀴 탄 사돈/선녀와 나무꾼>과 같이 상반된 경향의 이야기를 함께 제시하여 누가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거나 싫어할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1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문학사전』, <https://terms.naver.com/list.naver?cid=50223&categoryId=51051>, (접속일:2023.02.13.)

1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접속일:2023.02.13.)

15) 화소(話素 motif)는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 요소로, 쉽게 파괴되지 않고 용이하게 기억되며 독립적 생명력을 지닌다. -신동훈(2018), 앞의 책, 119쪽.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 더 자연스럽게 감동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야기를 어떻게 변형하고 싶은지, 과연 이 이야기들은 사실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설화 전승의 계급·성별·매체·지역·변이·취향·진실의 문제 등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

화소와 구조의 경우 설화에서부터 최근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주체·공간·사건 화소들을 다양하게 추출하고 연결짓는 연습을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 콘텐츠와 관련된 다른 수업을 하다 보면 화소와 구조를 반복적으로 연습한 여러 학과 학생들이 고전문학 수업을 섭렵한 국문과 학생들보다 야담이나 고전 관련 콘텐츠를 더 발달하고 설득력 있게 분석하는 사례가 많았다.¹⁶⁾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콘텐츠 수업은 이야기의 기본 요소들을 놓이하듯 반복적으로 연습하며 의미를 적층시켰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소한 작품을 대해서도 익숙하게 화소와 구조를 연결시키며 문학·문화적 의미를 도출해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공 수업의 경우 진도 때문에 이야기의 기본 요소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거나 작품들을 소개하며 함께 전달하는 정도였는데, 학생들이 참여하고 수행하면서 구성되어 가는 수업이라면 보다 이들의 호흡에 맞추어 속도를 조절했어야 했다.

화소를 이해하는 연습은 학생들끼리 여러 콘텐츠에서 매력적인 화소를 뽑아내거나 교수자가 제시한 화소에서 출발하여 논의를 확장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수분’을 흥부의 박, 소금 나오는 맷돌,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설화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¹⁷⁾ ‘오징어게임 승리자에게 주는 저금통’

16) 필자가 2022년 이화여대에서 담당했던 〈원천 서사와 콘텐츠 기획〉 수업에서는 개인 별로 『천예록』의 〈지리산에서 길을 잃었다가 신선을 만나다〉, 『청구야담』의 〈교활한 아전이 어리석은 원님을 조롱하다〉, 문화재관리재단의 〈모두의 풍속도〉 중 선택하여 분석 글을 쓰도록 했으며, 조별 활동으로는 원천서사 관련 콘텐츠를 분석하여 발표하도록 했다. 이에 관하여 학생들은 ‘수업 관련 다양한 주제로 많은 학생들의 깊이 있는 발표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평하며 만족해했다.

17) 신동훈(2018), 앞의 책, 130~131쪽.

과 연결시키면 디스토피아적 변형으로 보면서 우리 사회를 고찰할 수도 있다. 이처럼 마음을 사로잡는 화소들을 자기서사·시대정신·욕망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해석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며 구비문학 분석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설화 구조 분석의 경우 교재로 삼은 『한국구비문학의 이해』에서는 신화·전설·민담 부분마다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미리 함께 연습할 수 있다.¹⁸⁾ 구조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이후 〈삼공본풀이〉·〈홍순언과 보은단〉·〈종소리(은혜 깊은 까치)〉를 대상으로 이야기 요소들의 기능(행위자 모델), 통과 의례, 영웅의 일생, 이항대립 등을 각 조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¹⁹⁾ 설화의 하위 유형인 신화, 전설, 민담을 제시된 활용 모형에 따라 도식화해보면서 비교해볼 수도 있고, 더하여 단순히 도식화하는 데에서 나아가 주체의 욕망이나 행위의 가치를 평가하며 다양한 해석을 나누어 볼 수도 있다.

(2) '준비-강의-발표와 토론'의 순환

구비문학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루는 자료가 많고 역사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업 전에 자료를 포함한 강의 ppt를 사이버캠퍼스에 올려서 학생들이 미리 영상이나 설화 텍스트를 보고 오게 한다. 또한 자료에 따른 간단한 질문을 함께 올려서 이후

18) 『한국구비문학의 이해』에서는 제1장 구비문학의 갈래와 성격 부분(25쪽)에서 순차적 구조주의와 병렬적 구조주의를 언급하고, 제2장 설화의 이해 부분에서는 신화에서 '영웅의 일생'구조(74쪽)를 소개하고, 전설과 민담은 각각 '전설의 구조'(121쪽)·'민담의 구조'(181쪽) 항목이 설정되어 개별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

19) 〈삼공본풀이〉·〈홍순언과 보은단〉의 경우 이전 수업인 이야기·이야기판·이야기꾼을 살피는 과정에서 언급했던 작품으로 연속성이 있고, 〈종소리〉의 경우 『스토리텔링 원론』(신동훈, 2018, 60~67쪽)에서 분석과정을 쉽게 소개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강의 시간에 관심이 연결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광포전설(장자못, 아기장수 등)을 제시할 때에는 ‘왜 이렇게 비극적인지?’, 효열 설화를 제시한다면 ‘부모나 애인이 아프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나?’처럼 이야기는 형이상학적 질문에 실질적인 모습으로 대답하기 때문에 수업에서 설화와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며, 〈서편제〉를 볼 때에는 “‘그분제’에서 ‘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언제 ‘보비위’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지, 귀곡성을 너무 잘 불러 공중에서 귀신 소리가 들렸다는 명창은 누구인지, 영화에서 가장 빠른 장단(자진모리) 대목은 무엇인지” 등등 영화를 보고 순차적으로 찾을 수 있게 한다.

거의 매 수업 전 자료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얼핏 과제양이 많은 듯하지만, 설화나 무가, 인형극 등은 빠르게 보고도 기억할 수 있는 강렬한 콘텐츠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스럽게 여기지는 않는다. 또한 영상의 경우 무속, 가면극, 인형극은 수업 전 미리 보도록 하지만, 민요나 판소리의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영화 〈서편제〉를 강의 전에 볼 뿐, 수업 중에 자료를 함께 보고 들으며 소개한다.



1 <JIBS 제주방송 특집다큐멘터리> 2 <국립문화재연구소 다큐멘터리> 3 <강릉단오제 현장>

수업 전 감상 영상의 경우 현장 녹화본보다 흥미롭게 감상하며 상세한 해설까지 들을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제시하였다.²⁰⁾ 정제된 다큐멘터리의

20) 왼쪽부터 1. 2016년 제주방송 특집다큐멘터리 3부작으로 6개국의 사머니즘 실태와

경우라도 80년대 기록물을 감상했을 때에는 음악과 색채가 다소 무섭다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제주방송의 〈아시아 샴니즘 루트 대탐사〉를 감상한 경우 ‘공동체·위로·상징·예술·새로운 인식’ 등 긍정적 시각으로 굿 문화에 관한 댓글을 달았다.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문화상징적 의미를 편견 없이 상상하는 데에는 세련된 영상이 좋지만, 현장의 모습을 미화하는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

수업에서 연행 장면은 영상을 짧게 볼 수 있지만, 설화의 경우 교수자가 직접 이야기하거나 교재에서 구어체로 제시된 각편들을 학생들에게 구연 하듯 읽게 하여 채록된 자료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유형들을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매끄럽게 다듬어진 텍스트(줄거리 또는 서사단락)를 다수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설화와 무가 수업에서 피할 수 없는 고민거리이다.

5주차부터 조별 발표를 시작하는데, 각 조는 5~7명으로 구성했으며 수강 인원이 더 늘어나면 전설 발표를 첨가했고, 인원이 줄었을 때에는 민요와 판소리 발표를 통합하여 진행하였다. 하나의 갈래를 공부한 후 ‘우리 시대의 구비문학’·‘계승과 변용’을 내세워 각 갈래의 현재적 양상을 살피고 분석하면서 전승과 향유의 주체로서 나와 공동체를 생각해보았다. 학생들의 발표 중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¹⁾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BiGW9u5_UcQ&t=608s (접속일:2023.02.13.); 2. 1997년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로 김유감 만신과 그 제자들이 서울 새남굿을 기록하기 위해 공연하고 무속 역사, 의례의 준비과정 및 제차, 의의 등을 전문가와 내레이터가 설명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o1WIGmRcBE&t=595s> (접속일:2023.02.13.); 3. 전통예술 영상을 전문적으로 기록하고 편집해 온 천승요 작가가 올린 1997년 강릉 단오제 영상으로 https://www.youtube.com/watch?v=Vs3gnp8_UwI&t=3785s (접속일:2023.02.13.) 그의 기록물은 대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영상미가 돋보인다.

21) 아래 표에서 ‘인물 전설’과 ‘판소리’의 경우 발표 제목이 아니라 발표 대상을 제시하였다.

범주	발표 내용
신화	한국 여성신화의 계승과 변용에 나타나는 여성과 여성성 (무속신화 여성부터 현대 여성 정치인·경제인까지) 박유천 신화의 몰락으로 본 아이돌 신화의 기능과 신화 내부자들의 힘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현대 문학계 신화의 실체 백중원 신화 분석 한국 대학 입시의 신화화
전설	풍수설화의 가치와 현대적 변용 이어도 전설과 변용 계승 아랑형 전설의 계승과 변용 웹툰을 통해 본 전설 계승 형태와 그 변화 -계룡선녀전, 묘진전 조선죽 괴담 확산과 그 의미
인물 전설	유계석, 손석희, 김연아, 팀킴, 나혜석, 박막례, 전설이 되는 여성들-여협 전설
민담	구미호와 우렁각시를 통해 본 민담의 현대적 계승과 변용 바보사위 민담의 현대적 변용 -처월드와 장서 갈등 현대 시집살이 이야기 '아재'로 본 한국 민담 주거 공간 범죄담
민요	우리 노래에서 '사랑' '이별'은 어떻게 계승되었나? 민요와 대중가요의 현실 비판 양상 비교 노동요의 창조적 계승과 변용 협합에 열광하는 한국인들 - 유희, 저항, 대결의 측면에서 우리 시대 음악의 향유 양상에 나타난 전통 음악의 흔적 -아이돌 문화, 메창
판소리	메디아·사천가(외국 원작), 창작 판소리(켄디가·슈퍼대 썬데이 출정기), 이자람 소리꾼, 다른 장르와 결합된 판소리(판소리 가요, 동화 구연, 판소리 현대 무용극)
민속극	사회비판 놀이문화의 전통과 현대 현대 민속극의 양상과 한계-공개 코미디, TV개그 프로그램 전통과 현대의 인형극/가면극 비교 - 팽수, 캐리돌, 하즈네 미쿠

학생들의 발표는 <아랑>이나 <선녀와 나무꾼>과 같은 설화가 현대의 다양한 매체에서 어떻게 재창작되고 있는지를 살핀다거나 구비문학 속 인물형, 예를 들어 혼인 관계로 유입된 새로운 구성원인 사위나 며느리에 관한 담론을 살피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다거나, 구비문학 속 사랑·이별·권선징악·사회비판과 같은 주제 의식을 오늘날의 이야기나 노래·공연에서 살펴보기도 했다.

특히 ‘문학계의 신화적 권력 형성과 미투 운동’ ‘우리 시대 전설이 되는 인물-1세대 페미니스트 나혜석’ ‘조선족 괴담 확산과 그 의미’의 경우, 학생들의 발표는 전승된 설화의 현재적 양상을 찾아낸다기보다 현재 사회 현상을 신화·전설·민담의 시각으로 분석하여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익숙한 상황이나 가치를 낯설게 하는 데에로 나아갔다. 노래와 민속극에 대한 발표의 경우 ‘힙합에 열광하는 한국인들-민요·민속극과의 비교연구를 통한 원인 분석’은 서술이 과감하고 거칠었지만 민요와 민속극과 힙합의 유희·저항·대결문화를 비교하면서 랩배틀의 유희·저항·대결의 정서를 민요·민속극에서도 확인하며 이를 우리의 원형적 정서라고 주장했고 텍스트에서 나아가 향유 문화 전반을 대상으로 삼아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시의적인 주제를 선정하면 발표조가 대상을 새롭게 분류하고 비교 분석하면서 관련 참고문헌을 다양하게 찾으며 공부하게 된다. 다만 언제나 발표가 잘될 수는 없어서 이야기·판·꾼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도식적으로 제시되기만 한 경우에는, 토론을 통해 구비문학적 시각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얼마나 인간과 사회를 풍요롭게 이해하고 향유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되새기며, 소중하고 개별적인 미적 가치들을 살리면서 해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발표와 토론은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며 문제의식을 키워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교수자는 조별 활동이 잘 진행되도록 발표 전 준비 상황을 체크해주고 목표 설정이 명확한지 연구 대상이 적절한지 검토해준다. 외국인 학생이 있으면 비교문화적인 자료를 첨부하도록 했고, 질의응답 시간에 발표조 전체가 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외국인 학생들은 각국의 시집살이 이야기나 아이들 신화를 대하는 자세를 비교하기도 했고, 스포츠 스타를 전설화하는 과정에서 문화권에 따른 특수성을 살피거나 ‘노동’과 관련된 노래에서 서

로 다른 국가 체제의 특징이 드러나는지 대조해보기도 했다. 또한 대만의 〈빨간 옷 소녀 괴담〉과 같이 일명 ‘도시전설’ 사례처럼 각 나라에서 시기마다 유행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구비문학의 연구 범위와 문제의식을 확장하는 시각²²⁾을 논의할 수 있었다.

외국인 학생들도 토론시간에 질문하도록 하는데 참여가 미진한 경우에는 순번을 짜서 준비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질문하면 교수자가 받아서 수업과 관련된 의미를 더 구체화해서 토론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토론을 마치면 발표와 토론에 관한 피드백을 문서화하여 사이버캠퍼스에 공개하였다.

(3) 과제와 평가

구비문학 수업은 조별 발표 외에도 2편의 보고서(현장 조사 보고서와 작품 분석 보고서)와 2회의 시험(중간고사와 기말고사)으로 학생들의 공부의욕을 북돋우고 성취도를 평가한다. 1차 과제인 현장 조사는 설화 갈래를 공부하는 동안 제출하도록 하고, 2차 작품 분석 보고서는 기말에 제출한다.

구비문학은 현장을 체험해야 대상을 이해하는 데에 힘이 생긴다. 계절학기의 경우 매일 수업하고 발표를 준비하며 시험과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현장 조사나 공연 관람 과제를 부여하기 어려웠다. 또한 지난 2년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라 사람을 만나거나 여행 현장에 가기 어려웠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이어도 일반 학기 중이기에 본인이 생각하는 구비문학 자료를 안전하게 조사하도록 과제를 냈다. 구비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파악하고자 제약을 두지 않았고 다만 ‘왜 구비문학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히 서술하도록 하였다. 예상했던 것처럼 일부는 유튜브나 TV 같은 매체에서 우스개, 경험담, 사건담을 찾아 풀어써서

22) 구비문학 연구의 대상 확장과 문제의식의 변화에 관하여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남근우, 「일본 구승문에 연구의 동향과 과제-‘세켄바나시’론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5, 2002.

제출했는데, 유튜브 ‘야담선비’처럼 문헌이나 『대계』의 이야기를 이미지·자막과 함께 들려주는 콘텐츠, sns에서 유행하는 ‘썰’ 등이 중복되었다. 이전과 다르게 화면을 찍어 이미지를 올리며 이야기판과 소통의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학생들이 늘었다.

하지만 의욕적인 학생들은 친척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듣거나 집에서 가족에게 이야기를 구연하도록 하여 이를 채록했다. 녹음과일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미리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이야기를 직접 채록한 학생들은 대부분 녹음본까지 제출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각시바위 전설>을 조사한 학생의 경우, 전라도 전주에 거주하는 부친과 통화하여 이야기를 청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조사자에 대한 애정과 수업과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 때문인지 이 학생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과 각 지역의 『디지털문화대전』 등에서 유사한 자료들을 찾아 비교 검토하며 본인이 채록한 자료의 성격을 소개해주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도 한국 친구들로부터 아동기 때 놀이하며 부르는 유희요를 채록한 후 비교할 수 있는 중국 노래를 함께 기재해 제출했다.

또 이야기의 맛을 살리는 어머니나 친구에게서 채록한 경우 경험담·일상담이지만 흥미로운 서사·표현 요소들이 담겨 녹음본 내내 웃음소리가 가득하였고,²³⁾ 시간이 지나 수업 중 즉흥적으로 구연을 청했을 때 듣고 채록했던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여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었다. 조사에 여러 제약이 따른 현장이었지만 학생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구비문학의 여러

23) 조사자가 어머니로부터 들은 증조 외할머니 이야기는 평소 조용했던 증조 외할머니가 딸(조사자의 외할머니)을 보호하기 위해 동네 신여성에게 맞선 이야기로 비속어·전도된 상황이 교재 ‘민담의 표현방식과 문체(184쪽)’의 설명을 확실히 하면서 4대간 어머니로부터 딸로 이어진 집안 이야기라는 특성을 지녔다. 또 다른 조사자가 거제 출신의 친구에게서 채록한 <진아 이야기>는 어릴 때 제보자가 살던 동네 길고양이들의 이름이 모두 진아가 된 사연인데, 개인의 경험담이자 마을 사람들이 한동안 고양이들을 보면 ‘진아야’라고 인사할 정도로 당시 공동체에서 공감되었던 이야기이다.

특성들을 스스로 경험하면서 ‘구비’문학’에 대한 문제의식도 키워갈 수 있었고, 이후 수업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채록 조사 보고서는 구비문학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장 자료 조사를 위한 연구 윤리를 안내하고, 조사 보고서 양식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었다.²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 자료를 조사할 때뿐만 아니라 채록된 자료를 활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듣고 잊을 수 있으므로 문서로 올려 언제라도 참고하게 해야 한다.

자료와 함께 웃고 즐기며 수업을 듣다보면 시간이 어느새 지나버린다고 학생들이 말하지만, 사실 전공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분야 전문가로서 공부의 대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로 ‘문학이라는 대상을 충실히 이해하고 체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지식과 경험을 사회 문화 속에 의미 있게 살려내는 일’을 해야 한다.²⁵⁾ 때로 학생들은 어려운 용어들을 잘 사용하여 고차원적인 분석 내용을 멋지게 표현하면서도 가장 단순하고 기초적인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구비문학 대상들은 장소성, 실제성이 중요하므로 혹시나 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퀴즈 형식으로 질문했을 때 의외로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꼭두각시놀음>에서 꼭두각시 인형을 찾지 못한다거나 봉산 탈춤의 지역이 어디인지 지도에 표시하지 못했다. 수업 시간에 <꼭두각시놀음> 영상을 함께 보고 웃었고, 가면극의 분포를 전국지도 위에 표시해서 보여주었음에도 그러하기에 대상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출발을 재검토한다는 의미에서 시험에는 퀴즈 형식도 포함하고 있다.

24) 연구 윤리와 채록 조사보고서 양식은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김영희, 「구비문학’현지조사 연구의 윤리적 쟁점과 ‘상호주체적 만남’을 위한 모색」, 『고전문학연구』 58, 2020.; 김혜정,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설화 항목 선정 조사 보호의 문제」, 『무형유산』, 2016.

25) 신동훈(2007), 앞의 논문, 60~61쪽.

그동안 기말에 제출하는 분석 보고서는 『대계』에서 구비문학 텍스트를 선택하여 분석하고 이해하는 내용을 A4 3장 내외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주제, 유형, 화소, 작품 등 선택은 자유로우며 수업에서 반복해온 구비문학 연구의 주요 개념들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과제는 선행연구가 있는 작품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자기 고향 전설을 채록한 『대계』 부분을 찾아서 현재와 대조하여 살핀다거나 자신에게 흥미 있는 장소 관련 ‘괴담’과 유사한 내용이 『대계』에 있는지 검색해 본 학생처럼 자신의 현재와 밀접한 문제의식을 과제물에 담았을 때 재기발랄한 글이 될 수 있었다.

분석 보고서를 안내할 때 지역성이나 현재성 등 키워드를 제시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지금은 굳이 개인 분석 과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 고려하고 있다. 잘하는 학생은 어떠한 과제를 주더라도 수행하면서 실력을 쌓아가겠지만, 과목의 수강생이 많을 경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에 부딪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글을 맺는다. 콘텐츠도 집단으로 창작하고 분석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데 모두의 능력이 같아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부분들이 상승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었으니, 인공지능이 리포트를 쓸 수 있는 시대라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함께 도전적인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겠다.

3. 결론

이상으로 구비문학 수업 현장의 문제를 점검하고 그간의 수업 사례를 정리하며 앞으로의 수업 계획안을 제시해보았다. 15주로 진행되는 구비문학 수업은 설화, 무가, 민요, 판소리, 민속극 등 다양한 갈래를 다루는데, 지역적·역사적·장르적 성격이 다른 광범위한 작품과 현장을 대상으로 삼기에 교수자의 목표가 작품과 주제 선별에 영향을 미친다. 수강생의 경

우 국문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고전이나 콘텐츠, 구술에 관심이 많은 타과 전공생들의 수강이 이어지고,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커지면서 구비문학 수업에서도 외국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고는 이대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삼았지만 필자가 현재 출강하고 있는 가천대 구비문학 수업의 경우 53명의 수강생 중 외국인이 23명으로 앞으로 대학에서 수업구성원은 더 다양해질 수 있다.

구비문학 전공 교육은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강의안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며 수업에서의 구체적인 목표도 상이할 수 있다.²⁶⁾ 그러나 대학의 변화 속에 콘텐츠·활용과 같은 측면이 교과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다 해도 대학 인문학·구비문학 공부는 우리가 보다 꿈꾸는 사회적 가치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구비문학 교과는 민중문학에 대한 연구로 출발했던 만큼 그 기층성을 고려하면서, 공동체의 집단지성과 상징적 가치 창출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살아있는 장르로서 장소성·실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전 영상과 자료를 미리 학습하도록 유도하고 각 갈래마다 조발표를 배치하고 토론을 독려하며 역동적으로 수업을 구성하고자 했다. 외국인 학생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비교문화적 시각으로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구비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를 검토하고,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권의 구비문학을 해석하기 위해 문화학적 시각을 원용했다. 이는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를 깊이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현재 여러 사회문화 현상을 구비문학의 시각으로 분석하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익숙한 상황이나 가치를 낯설게

26) 이 논문의 토론자인 윤준섭 교수님께서 설화, 민속, 현지조사, 교육론 등과 결합된 여러 지역 대학들의 구비문학 수업 사례를 소개하며 조언과 문제의식을 더했는데, 구체적인 구비문학 교육 사례에 관한 보고와 분석 등이 앞으로 더욱 공론화되기를 기대해본다.

하는 데에로 나아가게 했다.

사회에서 구비문학을 강연하거나 관련 서적을 저술하는 사람들 중 국문과 출신이 아닌 경우도 많은 만큼 구비문학은 매력적인 분야이다.²⁷⁾ 여러 사람들이 구비문학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고 아름답고 재미있게 향유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삼는 구비문학 교육은 대학의 변화 속에서도 그 학문적 역할을 확장해가야 한다.

27) <문학주간 2019첫 행사! 꼭재식, 김환희가 들려주는 “옛이야기 그리고 다음 이야기”, 구비문학의 새로운 면모 살펴>, 『뉴스페이퍼』,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252>, 2019.09.06. (접속일:2023.02.13.)

참고문헌

- 강등학 외,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16, 1~580쪽.
- 강성숙, 「구비문학 관련 강좌의 현황과 교양 과목으로서의 구비문학」, 『한국고전연구』 22, 2010, 177쪽, 163~201쪽.
- 김영희, 「'구비문학'현지조사 연구의 윤리적 쟁점과 '상호주체적 만남'을 위한 모색」, 『고전문학연구』 58, 2020, 187~230쪽.
- 김혜정,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설화 항목 선정·조사·보호의 문제」, 『무형유산』 1, 2016, 147~190쪽.
- 남근우, 「일본 구승문에 연구의 동향과 과제-‘세켄바나시’론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5, 2002, 187~216쪽.
- 신동훈, 「21세기 구비문학 교육의 한 방향-신화의 콘텐츠화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5, 2007, 59~87쪽.
- 신동훈, 『스토리텔링 원론』, 아카넷, 2018, 1~316쪽.
- 염원희, 「사회적 참사 소재 도시전설의 유형과 의미」, 『한국민속학』 63, 2016, 81~113쪽.
- 오세정, 「구비문학의 관점에서 본 문화콘텐츠 교육 방향 -구비설화와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7, 2017, 5~29쪽.
- 윤정안, 「고전소설을 활용한 감성교육」, 『한국고전연구』 69, 2022, 91~118쪽.

〈문학주간 2019첫 행사! 광재식, 김환희가 들려주는 “옛이야기 그리고 다음 이야기”〉, 구비문학의 새로운 면모 살펴, 『뉴스페이퍼』,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252>,
2019.09.06. (접속일:2023.02.13.)

〈서울 새남굿〉, 국립문화재연구소 다큐멘터리, 평창직업산업학교,
<https://www.youtube.com/watch?v=no1WIGmRcBE&t=595s> (접속일:2023.
02.13.)

〈아시아 샤머니즘 루트 대탐사〉, JIBS제주방송 특집다큐멘터리, jdh3216,
https://www.youtube.com/watch?v=BiGW9u5_UcQ&t=608s (접속일:2023.
02.13.)

ArtsKoreaTV.com, <https://www.youtube.com/@ArtsKoreaTV/videos>. (접속일:
2023.02.1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문학사전』,

<https://terms.naver.com/list.naver?cid=50223&categoryId=51051>, (접속
일: 2023.02.13.)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홈페이지, <http://my.ewha.ac.kr/kukewha/>(접속
일: 2023.02.1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접속일: 2023.02.13.)

효녀심청, Play Curio TV,
<https://www.youtube.com/watch?v=KjSTdw08cWE&t=178s> (접속일:2023.
02.11.)

ABSTRACT

A Study on the Role and Potential of Oral Literature Classes
as a University Major Education

Hong, Na-rae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issues of the oral Literature course, based on the Korean Oral Literature course at Ewha Womans University, and proposes plans with cases in order to raise the possibilities and objectives of Korean oral Literature as a university major. The 15-week Korean oral Literature course covers various genres such as folk narratives, Shaman's songs(muga), folk songs, pansori, and folk plays. Because the regions, histories and genres of works are diverse, works and topics are selected according to the professor's teaching goal. In terms of students, in addition to Korean Literature majors, students from other departments with interests in classics, contents, and oral language, and as the proportion of foreign students increases in the university, foreign students are also increasing in the Korean Oral Literature course.

Even if the aspects of utilization are highlighted in the curriculum due to the change in the university, the study of Korean traditional literature should aim for the social values that we dream of. Since the research on Oral literature started as research on folk/minority literature, we should consider its basic nature while considering the collective wisdom and symbolic value creation of the community. In addition, we must consider the locality and reality as a genre that is still alive.

In the class, students were encouraged to pre-learn videos and materials before the class, and each genre was arranged with group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to dynamically construct the class. In the situation where foreign students are increasing, comparative literary perspectives were used to lead their participation and review the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Korean oral literature, and cultural

perspectives were used to interpret Korean oral literature in different eras and cultural regions. This not only deepens our understanding of Korean oral literature, but also moves towards deepening our understanding of humans and society by analyzing current social and cultural phenomena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oral literature, challenging familiar situations and values. Thus, Korean oral classes that focus on our daily lives and stories should expand their academic role even in the midst of university change.

Key Words

University majors, oral literature, Comparative Literature, Literature and Culture,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ral literature research methodology

논문투고일: 2023.04.22.

심사완료일: 2023.05.03.

게재확정일: 2023.05.04.